

Art & Technology #27: 라파엘 로차노-헤머

테크놀로지로 전하는 그림의 미학



빛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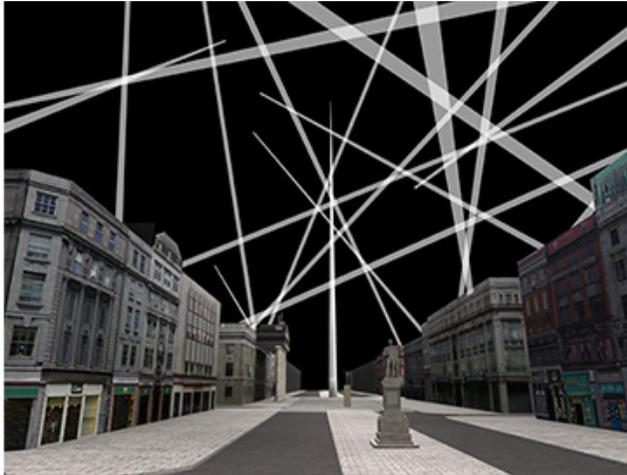


전통매체에서 미디어 아트로 예술 매체의 전환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현대로 올수록 예술 소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새로운 분야로 지속해서 확장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인공적인 '빛'의 등장은 예술에 다채로운 이미지를 탄생케

이러한 빛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공미술 작품으로 이름을 알린 작가가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으로 캐나다에서 수학한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공공예술가 라파엘 로자노-헤머는 단순히 자연광을 해석하는 단계의 예술을 넘어 다양한 빛을 사용해 도달할 수 없는 비물질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빛을 이용해 마치 하늘과 건물에 그림을 그린 듯한 예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으로 구현하는 도시풍경



라파엘 로자노-헤머는 1999년 멕시코시티 조칼로 스퀘어(Zócalo Square)에서 건축을 거대한 인터랙티브 아트로 전환한 작품 <Vertical Elevation>으로 그의 이름을 세상에 각인시켰습니다. 여러 각도와 방향으로 쉴 새 없이 교차하는 서치라이트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발산하는 빛은 환상적인 경험을 만들어내지만,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예술에 익숙한 이라면 빛으로 수놓는 하늘은 미디어 아트에서는 어쩌면 더는 특별할 것 없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빛은 로자노-헤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작가가 만든 웹사이트(www.alzado.net)에서 발단한 것입니다. 누구든 웹사이트를 방문해 라이트의 각도와 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 라이트 조각이 탄생합니다. 첫 프로젝트 당시 단 2주 동안 89개국 80만 명이 참여할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2002년 스페인 비토리아, 2003년 프랑스 리옹, 2004년 아일랜드 더블린 등 세계 여러 도시로 뻗어 나갔습니다. 광장을 방문한 사람은 세계 저편에 있는 누군가가 디자인한 빛으로 이루어진 공공미술을 만나는 것, 이를 통해 작가는 웹사이트 이용자와 방문객을 이어주는 매개자로 역할을 하며, 하늘은 캔버스가 됩니다. 이렇게 현대 도시풍경을 다양한 빛으로 수놓은 작품은 그에게 동료들과 함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상(Prix Ars Electronica) 인터랙티브 아트 분야에서 골든 니카상(GOLDEN NICA)의 영예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관람자 참여로 완성되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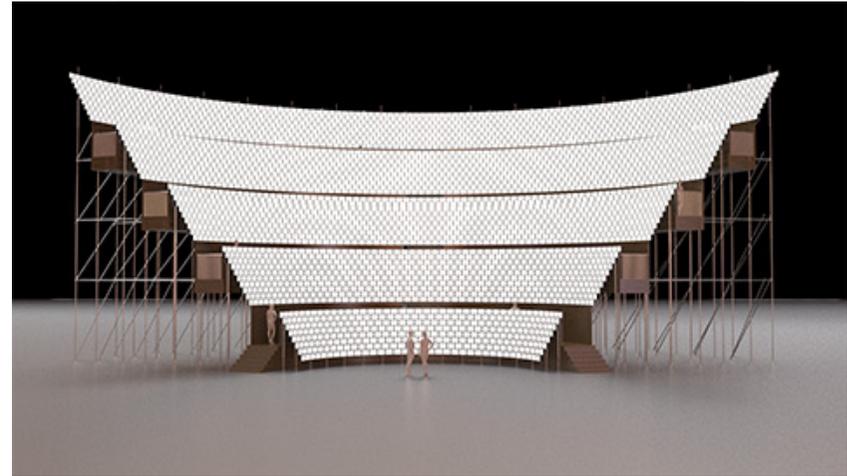
로자노-헤머는 이처럼 관람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작품이 변형되고 완성에 이르는 대규모 집단 참여형 인터랙티브 아트를 선보입니다. SF MOMA에서 전시한 <Frequency and Volume>(2003)은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앞쪽에 큰 화면이 있고 뒤에서 빛이 새어 나오는 작품입니다. 관람자가 벽 앞에 섰을 때, 화면에는 그림자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형체나 높이에 따라 라디오 주파수를 매치합니다. 그에 맞는 주파수가 있다면 스피커에서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오며, 그림자 위로 화면은 주파수와 방송곡을 함께 띄웁니다. 색채가 없는 그림자라고 해도 각각 모습이 다르듯이 각기 다른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관람객은 자신을 투영하는 이미지와 타인의 그림자를 직접 대면합니다. 화면 속에서 타인의 그림자와 겹쳐지는 관람객 자신의 이미지에서 낯선 공간과 시간 속에서 소리와 빛을 활용한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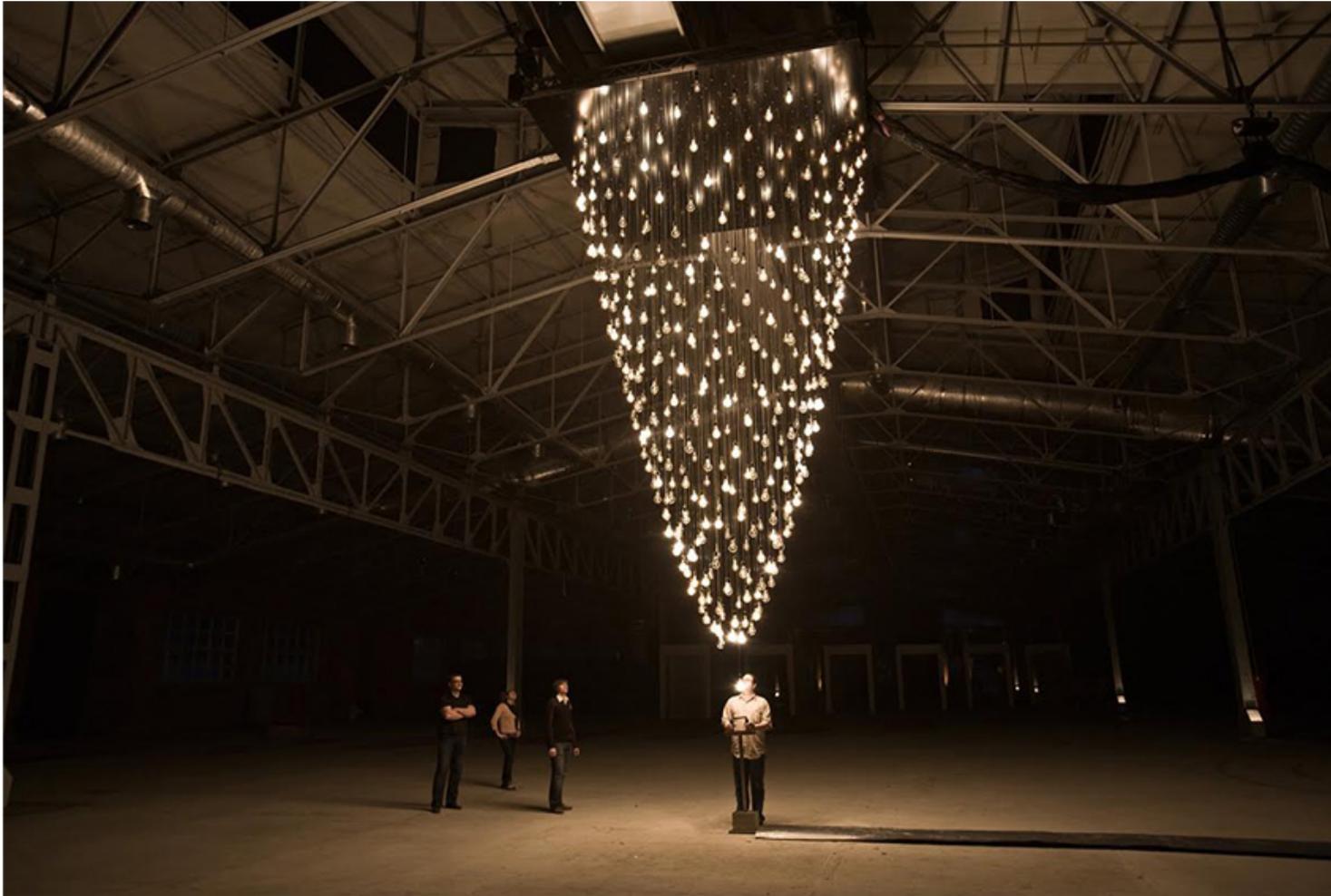


거대 규모 인터랙티브 설치 <Homographies>(2006)에서도 관람객의 참여는 이어집니다. 로자노-헤머는 전시장 천장을 형광등으로 가득 채웠고, 센서를 배치해 관람자의 위치를 인식하게 했습니다. 센서가 관람객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형광등도 궤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작품은 144개의 새하얀 형광등을 72개의 로봇틱 고정장치에 동등한 거리를 두고 고정한 작품으로 '2006 시드니 비엔날레'에서 선보이며 많은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최신작 <Call on Water>(2016)는 물 분지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공중에서 단어를 쏘내려가는 분수입니다. 멕시코 작가 옥타비오 파즈(Octavio Paz)가 쓴 시 수십 편은 공기로 만든 단어가 되고 다시 공기가 됩니다. 시의 내용은 찰나의 통기성을 지니며 곧 난기류에서 사라집니다. 분수대는 수백 개의 컴퓨터 제어 초음파 분무기를 반사 수조 아래에 배치해 차가운 증기를 생성하고, 관람자는 어둠 아래 은은히 빛나는 연기 속에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의 공존

이처럼 그의 작품에는 기술이 필수불가결해 보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다양한 기술언어를 사용하고 미디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로자노-헤머는 예술에서 기술의 활용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테크놀로지 아트는 아닙니다. 컴퓨터는 효율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가속하지만 그건 그에게는 예술이 아니라는 그의 말처럼, 그는 예술이란 커뮤니케이션을 느리게 하고 의문을 제기할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뉴미디어 매체는 사람 사이 커뮤니케이션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그가 추구하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발전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로자노-헤머는 작품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다양한 주변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가 작품을 통해 진정으로 추구하는 요소는 “공동체, 친밀함, 느낌”입니다. 앞으로 그가 발현할 다양한 예술세계가 기대됩니다. ■ with ARTINPOST





<Pulse Spiral> 2008

Incandescent light bulbs, heart sensor, DMX controller, digital dimmer racks, computer, custom software Dimensions variable, from 3.5-4m height

Courtesy of bitforms gallery

Profile



라파엘 로자노-헤머는 1967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캐나다 몬트리올 컨커디어 대학교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한 뉴미디어 일렉트로닉 아티스트입니다. 빛,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건축, 테크놀로지컬 무대예술, 설치, 퍼포먼스, 공공미술 작품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Leonardo』 객원편집인, 『Mediamatic Interactive Publishing in Amsterdam』 공동 편집인을 역임하는 등 작가로는 독특한 이력을 쌓았습니다. 몬트리올 현대미술관(Musee d'art contemporain), 멕시코 몬테레이 박물관(Museo de Monterrey) 등 세계 유수 기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1995년과 1998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상(Prix Ars Electronica)에 특별 언급(honorable mention)됐고, 토론토 인터랙티브 디지털 미디어 어워드(Interactive Digital Media Awards)의 '최고의 설치상'을 비롯해 독일 사이버스타 어워드(Cyberstar award)를 수상했습니다.